

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5 백만불을 지불한다고 발표했다.

뉴욕주 노동청 110 년 역사에 Lenny's 와 최대규모의 합의를 하였다.

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오늘 뉴욕주 노동청이 샌드위치 가게 Lenny's 와 800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밀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5 백 1 만불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.

“우리의 의무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모든 임금이 보장 되고있는지 보호하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다.” 앤드류 쿠오모가 말했다. “이번합의-뉴욕노동청의 역사에 근로자들을 위한 큰규모의 합의로 기록된다 -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근로자들 부당하게 이용하는것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. 나는 뉴욕 노동청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.

Lenny 는 뉴욕에 위치한 체인 샌드위치 가게로 몇개에 위치해있다. 2002 년 부터 2008 년동안, 8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11 개의 가게에 일하였고 그들은 수백만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. 노동청의 조사결과 직원들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조사되었다. 직원들은 하루에 10-12 시간 일을하였고, 6 일에서 7 일을 일을하였고, 일주일 주급은 평균 \$275.00 이었다. 뉴욕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노동법에 따르면, 직원들은 같은 시간을 일했을경우 적어도 주급을 \$500.00 을 지급받았어야 한다. 또한, 업주가 가지고있던 직원들의 시간기록은 정확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주어져야하는 임금 내역서도 제공되지않았다, 모두 법으로 요구된다.

이번 조사결과, 노동청은 Lenny's 와 임금, 이자 그리고 훼손에 해당하는 5 백 1 만불을 합의했다. 노동청은 1 백만불의 선금을 받았고 Lenny's 는 4 백만불을 24 개월동안 지불할것이다. 또한, Lenny's 는 뉴욕주에 백만불 벌금을 낸다. 직원들은 6 월 2011 년부터 지불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시작한다.

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\$7.25 다. 고용주들은 40 시간이상 오버타임 일한직원에게 직원의 최저임금의 1.5 배로 지급하여야한다.

이번조사는 Supervising Investigator Maritza Lamboy 아래 Senior Investigator Cloty Ortiz 의해 조사되었다.

